

절대 행복

작성일 : 2012. 03. 02. (금) 밤 22:40 ~ 23:48

작성자 : 김효정

* “오늘날, 주님 그리고 선생님과 귀한 만남... 하루라도 그 가치를 모르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소유하고 싶은 것은 절대 행복, 절대 사랑입니다. ‘나’ 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나와 주님과 만남이기에 행복하고 나와 선생님과 만남이기에 행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개성으로 창조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생각을 간구할 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

* 예수님 말씀 *

내 사랑이여.
사랑의 고지는 바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단계의 사랑이다.
내 안에는 너만 있고
네 안에는 나만 있는 사랑.
이 세상 모든 존재체들은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다.
모두 다 각자의 생명체로 존재하며
상호 공존의 세계이지.

모든 자연 만물계 생태계의 흐름도
약육강식이라는 논리로만이 아니라
공생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창조 본연의 기본 질서는 공존이다.
평화에 의해, 움직이는 법칙에 의해
동물 세계도 식물 세계도
인간의 다스림에 의해
각각의 수한대로 존재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질서를
움직여 줄 수 있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적 지혜와 사랑을 상실하게 되었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잃게 되었으니
모든 질서에는 무질서와 강자가
약자를 해하는 것이 허용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 창조의 사랑을 받아
그 마음과 지식으로 지구상 모든 존재체를 다스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 환경은
지금 같은 타락과 오염, 무질서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동물도 사랑받으면 마음이 온순해지고
그 특성이 하나님께 왔으니
더욱더 멋진 창조물이 되어 지낼 수 있을 것이나
인간의 마음이 포악해지고 전쟁을 일으키며
상대의 목숨을 아끼지 않게 되니
동물 세계도 동일하게 돌아가 버렸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의 가치성을 잃게 되니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서로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며
상대를 진정 사랑하여
그의 축복을 함께 기뻐해 주지 않으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비교 심리만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다.
진정 사랑으로 행복하지 못하니
남보다 더한 행복을 얻는 길이
남보다 더 큰 것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끝이 없는 바벨탑만을 쌓게 되는 것이다.

사랑은 너만의 것이며
네 마음이 소유한 유일한 보석이다.
네 사랑은 오직 너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타인의 사랑 중 일점일획도
너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너의 사랑은 오직 너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완전히 네 것으로 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은 완성되는 것이다.
너와 나의 사랑은 유일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가져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다.
다만 오직 한 존재만이
그 사랑을 땅에 버리고 밟아
무가치하게 할 수 있으니
그는 바로 너 자신이다.

네가 네 사랑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너와 나의 사랑을

천하의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는 자이다.

다만 네가 변하고

네가 나를 버리는 것임을 알아라.

절대 사랑만이 절대 행복을 누리게 한다.

행복이 무엇이더냐.

행복이란 영원성에 있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영원한 것은 오직 완전한 사랑에 있으니

완전한 사랑으로 절대적인 심정을 소유한 자는

너와 나와의 사랑에서

유일한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 주님. 주님을 만난 시간, 이 시대 중심자이신 선생님과 보낸 육의 시간 동안 항상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 졸인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이 어리석었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함께 육으로 살고 있는 공존의 이 시간이 완전한 행복임을 알았습니다. *

사랑의 천국은

공존의 기쁨 속에 있는 세계이다.

함께 있어야 행복한 단계

함께 있지 못하면 지옥같이 느껴지는 사랑.

사랑하는 이어.

나만 소유하면 된다.

나만 소유하면 전부를 얻는 것이다.

나를 믿어야 한다.

내 사랑의 완전함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신의 사랑은 비교가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사랑임을
완전히 깨닫는 자는

절대적인 행복 속에 영원히 존재하게 되리라.

* 아멘.

절대 사랑, 절대 행복은 주님을 온전하게 아는 단계에서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옴을 깨닫습니다. 이 시대 중심자의
사랑 또한 동일함을 믿습니다. *

그렇다.

네 선생의 사랑!

그 사랑은 육의 단계로 알 수 없는 사랑이다.

이미 신의 사랑 영역에 거하는 자이니

너 또한 창조의 사랑을 깨닫는 차원에서 그를 만나야만

네 사랑이 깨어지지 않게 되리라.

네 선생의 마음은 영원히 변함없고

나에게 절대적인 사랑으로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듯

그를 사랑으로 찾고 부르는 자에게

나에게 주는 사랑처럼 동일하게 만나 주리라.

신부역사의 사랑 단계는

유일한 절대 사랑으로 일체 된 관계임을 깨닫기 바란다.

내 사랑을 깨닫는 자는

절대 행복 속에 오늘도 내일도 오직 기쁨으로 주를 만나
사랑함으로 나와 동행하리라.